

신년사 | Newyear address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철호

존경하는 건축사 회원여러분!
2007년 丁亥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 회원여러분께서 협회와 건축계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돼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 새해를 맞아 회원여러분 모두 건강과 만복이 넘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은 협회가 많은 사업을 구상했고, 또한 많은 일들을 새롭게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침체된 건축계의 흐름을 바꾸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회원여러분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획기적인 전환점도 마련했고, 여러 뜻 깊은 성과를 거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 다시금 정부 주도하에 불거지고 있는 특정 대형건설회사의 설계업 허용 요구와 300세대 미만 감리회사의 감리 허용 문제로 명암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협회는 이러한 건축사의 自尊 및 生存權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여 회원여러분의 권익과 건축계 모두를 위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은 본 협회 이근창 부회장께서 아시아 17개국에 가입되어 있는 ARCASIA(아시아건축사협회의)의 회장으로 당선됐고, 이밖에도 2008년 아시아건축사대회 부산 유치와 세계건축사연맹 건축사실무위원회(PPC) 회의 서울유치 등으로 세계 속의 우리나라 건축사의 위상이 크게 신장된 한해였습니다. 또한, 협회가 건축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와 건축 관련 업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겨냥한 한국건축산업대전을 처음 개최하여 건축,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건축사연수교육 실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와 업무실적관리의 인터넷 증명발급시스템 구축, 건축법해설 책자 및 전통건축 자료집 발간으로 대회원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고, 건축계 유일한 정론지 '건축문화신문'을 창간하여 건축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를 마련하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건축계 모두의 보금자리가 될 '건축사회관' 준공으로 앞으로 대한건축사협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그 동안 우리가 찾아낸 기회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축사 회원여러분!

2007년은 건축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한 건축관련 법·제도 개선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건축계도 이에 발맞춰 경쟁력 강화 및 지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건축사 모두의 하나 된 힘이 절대명제입니다.

협회는 올해에도 이러한 우리 내부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건축의 선진화,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 및 건축사의 위상을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사등록원 설립과 관련한 건축사법 개정, 건축문화진흥법·건축기본법·건축물유지관리법 제정 추진, 건축의 날·한국건축산업대전·전국건축사대회를 연계한 건축주간행사 개최, 건축자재인증사업 시행 및 건축사공제사업 추진, 건축사계속교육·실무수련 시행사업 시행, 각종 건축정책 및 연구사업 등을 올 한해 역동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에너지와 저력을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고 앞당기는데 쏟아 부어야 합니다. 올해에는 건축계에 불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기회 삼아 건축사와 대한건축사협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고, 그간 그려놓은 큰 그림을 구체화해 하나하나 반드시 실현해 나갑시다.

모쪼록, 2007년 우리 건축사와 협회가 일취월장하는 충만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丁亥年 건축사 모두에게 복된 소식과 희망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아침